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20707호 1판 (음력 1월 28일)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MB 밤샘 조사…혐의 적극 부인

전직 대통령 중 다섯 번 째 출두…"국민 여러분께 죄송"

검찰, 110억 원대 뇌물수수·다스 실소유주 입증 총력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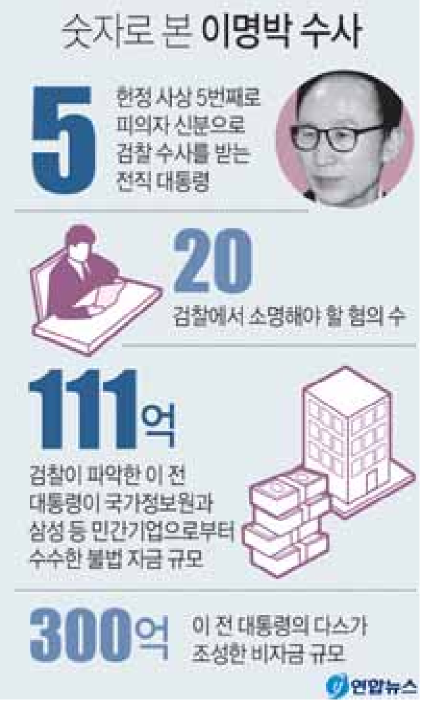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밝혀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기조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실에 마련된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다스와 관련해서는 BBK 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여개나 되면서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120여 페이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 "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면서 비리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개인 비리로 거리를 두면서도 지방선거용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포토라인에 선 MB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농림부장관 사퇴 오늘 전남지사 출마 선언

신정훈·장만채 오늘 출마선언 … 민주 전남지사 경선 본격 시작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설 인사들이 15일 모두 출마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경선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15일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전남지사 출마기자회견을 갖는다. 신 전 비서관은 '젊은 전남'을 내걸고 출마 배경과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 13일 사직서가 수리됐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14일 사직원을 제출했다. 김 장관은 15일 이임식을 가진 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어제(13일) 국무회의 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뵙고 사직원 제출에 대한 허가도 받았다"며 "앞으로는 전남도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19대 국회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7월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김 장관 사퇴로 당분간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후임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전남지사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학수 전 농수산부 차관, 고형권 현 기재부 1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입당을 신청할 예정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같은 날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장 교육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 교육감의 입당 허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매각 철회" 총파업

파업 결의대회 4300명 참석

금호타이어 노조가 14일 해외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4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광주, 곡성, 평택 공장에서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총파업은 15일 오전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광주와 곡성공장 각 1500여명, 평택공장 3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이날 오후 2시 광주 광산구 영광통사거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송신탑 주변에서 43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2일부터 송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던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지회장 등은 이날 "동지들 곁에서 현장을 지키며 상경투쟁뿐만 아니라 대정부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농성을 중단했다.

노조는 채권단이 해외매각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주 한 차례 더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광주공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곡성공장에서 각각 부분파업을 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6·13 지방선거 누가 뛰나
광주시교육감·전남도교육감 ▶6면

논설위원이 간다 지방선거 현장 속으로…전남지사 선거 ▶5면